



제목	Rebuilding Anatolia after the Mongol Conquest: Islamic Architecture in the Lands of Rûm, 1240-1330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14. 11. 14.
저자	Patricia Blessing
출판도시	Abingdon
페이지수	272
ISBN 또는 ISSN	978-1472424068

내용 요약

『몽골 정복 후 재건하는 아나톨리아: 1240~1330년 룸 지역의 이슬람 건축물』은 몽골 정복부터 일칸(Ilkhan) 제국의 붕괴까지 지배 세력의 변화, 인구 이동, 문화적 변형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이슬람 건축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힌 책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셀주크에서 오스만으로 변하는 시기로, 튀르크의 민족적 동질감이 확대되는 시기로 보았다. 하지만 저자 블레싱은 아나톨리아 지역을 몽골 제국의 뼈대 내에 독립적인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 이란, 코카서스 공화국들의 영역으로 통합된 지역으로 보았다. 이를 설명하는 도구로 저자는 건축물을 선택하였다. 모스크는 신자들의 장소이고, 마드라사는 이슬람법과 신학의 장소였으며, 카라반은 상인과 여행자들의 무역로였다. 저자는 기념물, 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문서, 역사적 사진들을 근거로 하여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자 하였다.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왕의 후원이 없는 수도: 코냐(1240~1280)’는 권력의 공백기이지만 지역의 후원자들이 만든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다. 2장 ‘배움의 수도: 시바스의 3개의 마드라사(1271~1272)’는 무역의 중심지인 시바스에서 후원 운동으로 만들어진 마드라사를 서술하였다. 3장 ‘일칸의 변경: 에르주룸(1280~1320)’은 이슬람화된 일칸의 지배하에 지역의 튀르크 왕조의 후원 하에 세워진 건축물을 설명하였다. 4장 ‘세계적인 순간의 작은 도시들: 토라트, 아마시아, 앙카라(1280~1330)’는 일칸이 내부 반란과 외부의 침입으로 힘든 시기에 작은 도시들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상황을 담고 있다.